

《主 題》

'93 통신정책 방향

박 성 득
(체신부 통신정책실장)

■ 차 례 ■

I. 세계의 통신시장 동향	IV. '93년도 주요시책
II. 우리나라의 통신현황	V. 맺는말
III. '93년도 전망과 통신정책 방향	

I. 세계의 통신시장 동향

세계는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화, 개방화, 국제화의 급속한 흐름에 휩싸여 있으며 통신사업 분야에서도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 도입추세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을 통해 새로운 통신 서비스 교역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편, 통신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대되는 국내외 통신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해저케이블망 및 별개위성망등 국제통신시설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CATV, 위성통신분야 등의 기술발전과 사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유·무선통신이 결합되고 통신과 방송 그리고 컴퓨터의 융합현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정보사회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기술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EC통합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계기로 블록화, 다극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태지역도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또는 아시아 ISDN협의회 (AIC)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통신협력 움직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II. 우리나라의 통신현황

대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신망 확충 및 현대화 정책을 시행해나감으로써 가입전화 시설은 '92년말 1,902만회선으로서 세계 8위권에 진입하고 100인당 전화보급율은 36대로서 기본통신수요를 충족시켰으나, 이동전화는 1000명당 보급율이 6대로서 미국의 1/5, 영국의 1/4, 일본의 1/2 수준이며 100만명당 컴퓨터 설치대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1/24, 1/12 수준으로 무선통신과 데이터통신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 유입을 통해 통신사업의 효율성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0년 7월 통신사업 경쟁체제 도입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부가통신사업은 '90년10월 등록제로 전환하여 완전경쟁을 실시하여 사업자수가 '91년 30개사에서 '92년 70개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91.12월 미국, 일본, 홍콩등 3개국을 대상으로 경쟁이 도입된 국제전화사업은 '92년에 경쟁대상지역이 65개국으로 확대되었고, 무선호출사업 부문은 '92.8월에 1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모두 허가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들 사업자들은 영업개시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간 분

쟁을 조정하고 공정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통신위원회가 발족, 운영됨으로써 경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하여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투자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 연구개발법령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술개발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체신부가 다시 관장하게 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개의 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연구기능을 대폭 확충하였다.

이와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전사교환기(TDX), 주전산기(I, II) 및 64M DRAM 등 첨단통신기술개발에 성공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제한된 연구인력, 재원 및 원천기술 부족으로 첨단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Ⅲ. '93년도 전망과 통신정책 방향

무질서, 파소비, 근로전신토조와 같은 한국병을 치유하고 고통의 분담, 국민화합, 사회안정, 경제재도약을 통해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새정부가 '93.2.25일에 출범할 예정이며, 새정부는 특히,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축으로 삼아 「기술한국」을 건설한다는 기치아래 과학기술 투자의 배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산·학 협력체제 등을 강조하는 한편, 정보사회에 대비산업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금년 한해는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육성대책을 수립하는 일들이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국제전화, 이동통신 및 부가통신등 그동안 구축된 경쟁체제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분쟁발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서 공정경쟁 보장문제가 계속 주요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기업들의 통신사업 참여욕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3년 국내경제 여건은 기반기술부족 및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원요청이 꾸준히 증대될 것이며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기회 경향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 원천기술개발수요도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UR협상 과제타결후에는 다시

기본통신분야 개방을 위한 다자간협상의 출범이 예상되고 한·미 통신회담 타결에 따라 후속조치 협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신장비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가 가시화되고, 특히 부가통신사업 분야의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탈이념화, 남북한의 UN가입 및 동구의 개방 등 국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북방국가와의 통신교류가 한층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정보통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고도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세부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방향 및 목표 아래 올해에는

첫째, 2000년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업정책 방향, 기술개발계획등 중장기 정책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조기 정착등을 통해 국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셋째, 첨단기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질 좋고 저렴한 기기를 개발·생산토록 하여 통신사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넷째, 전파이용의 활성화, 정보화촉진 및 정보산업 육성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무선통신 및 데이터 통신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다섯째,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부응하여 각국의 통신주관청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Ⅳ. '93년도 주요시책

1. 2000년대를 대비하는 통신정책방향 정립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보통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발전지향적인 통신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2000년대 고도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 통신사업 경쟁도입, 기본통신서비스 개방 움직임등 국내·외 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사업 구조조정 추진성과를 평가해 보고, 저궤도 위성통신, 무선데이터, 대형건물구내통

신,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통신개발연구원 및 전자통신연구소의 연구·검토 및 통신사업자등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다수로 됨에 따라 설비의 과잉 투자를 예방하고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자원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현행 정책과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2.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조기정착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라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정경쟁 관련제도를 계속 수립해 나가고 그 후속조치를 착실히 시행토록 하는 한편, 통신요금구조도 경쟁체제와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원가에 근접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통일회계기준을 제정·고시함과 아울러 지난해 고시된 통신망 상호접속 및 설비대여 기준에 따라 통신망을 공개하고 기존 상호접속협정등을 개정토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분야와 타 사업분야간 회계를 분리하고 공정하고도 비차별적인 통신망상호접속을 보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경쟁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내전화요금과 원가보다 높은 장거리전화요금간의 요금구조 불균형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외요금은 인하하여 지역간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시내요금은 인상함으로써 경쟁이 도입되어도 시내전화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전화요금의 사업자간의 요금격차는 적정경쟁 체제 구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통신활성화를 위한 PC이용자의 요금할인과 새로운 요금구조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새로 사업자로 지정된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조기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한텔레콤의 사업추진 포기에 따라 중단된 이동전화사업 추진방침도 정할 예정이다.

3. 정보통신 기술개발 강화 및 산업화 촉진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개발·차립토록 하고 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이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구기관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채신부는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출연금 2,991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32%가 늘어난 3,491억원을 연구개발 투자재원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지털이동통신, 위성통신, 고성능컴퓨터등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차세대통신망 구축을 위해 광대역통신망, 지능망시스템, 개인휴대통신망(PCN)등 첨단통신기술개발을 강화하며, 기초소재인 반도체, 광소자, 신경회로기술등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연구관리 체제를 정비·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채신부는 전과연구소의 확대개편을 추진하여 전과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과와 관련된 국가고유분야의 연구기능을 수행토록할 예정이다.

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개편·보강하여 산업 및 통신사업과 연계된 공통 기반기술 및 공통 애로기술등을 연구하는 정보통신 중심연구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연구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연구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운용기술 및 서비스실용화 기술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요조사, 국책연구과제 목표설정 및 연구실적평가를 위해 작년말에 설치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의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제표준화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기술협회등 국내 표준화전문기관을 선진국수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표준화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관련산업체에 표준화 마인드 확산을 추진할 것이다.

금년에도 200억원규모의 기술개발자금을 바탕으로 대학,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등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정보통신용 전자부품 기술개발을 포함한 산업

제의 제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통신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유망중소통신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4. 통신·방송위성사업 추진

'95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위성은 통신용 중계기 12기 및 방송용 중계기 3기를 보유하게 될 통신·방송복합위성으로 직접위성방송, 고속데이터통신, 종합유선방송중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3,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91년에는 미국의 GE사와 위성체 구매계약을, '92년에는 미국의 MD사와 발사용역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금년에는 지상관제소를 착공하고, 소형지구국시스템(HUB, VSAT)과 비상·행정통신망(DAMA/SCPC) 시스템등 지상장비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기술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위성제작회사에 기술훈련단 30명을 파견한데 이어 금년에는 발사제작회사에 24명을 파견하여 기술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에는 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을 결정하는 한편, 위성 사업자의 구분 및 사업자별 업무영역 설정, 위성사업의 참여자격 및 절차 등을 규정하게 될 위성통신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5. 전파이용의 활성화

전파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전파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전파이용서비스의 확대 및 이용환경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주파수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급증하는 초단파대 주파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협대역화를 추진하는 한편, 방송중계소의 저지대·저출력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FM방송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AM스테레오 방송을 '93년중에 시험 실시하고 '94년도에는 분방송을 개시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전화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개선하여 신청당일 허가가 가능토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95년 무궁화 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우주국 허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마추어연맹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자는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전자파장해검정표준시험장을 건설·운영하고 불법무선국 및 검정미필 기기유통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전파이용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면서, 전자통신제품의 품질향상과 수출지원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96년말까지 전국단일망 완성을 목표로 자동전과감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으로써 전과감시업무의 생력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과기술개발자금과 전과관리업무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통신사업자, 이동전화이용자, 자가통신시설자등을 대상으로 전과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6.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사업 육성

제1단계사업('87~'91)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차세대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도 추진하는등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정보화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시범사업을 개발·추진하고 농어촌 컴퓨터교실도 '93년18개소에서 금년에는 28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컴퓨터단말기 1,000만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7만대의 하이텔 단말기를 보급토록 하고 컴퓨터통신망서비스도 군단위지역으로 확대·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DB의 개발 및 공개를 촉진하고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93 상반기 중에는 정보통신 전문리사회사를 설립하여 국산 정보통신기기 위주로 장기·저리로 리스업무를 개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산망법을 보완하여「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준의 제정 및 전산감리제도의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7.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외정책 추진

세계경제의 블록화·다극화 및 UR 협상타결 움직임등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쌍무 및 다자간 협상은 국익확보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및 북방국가등에 대한 통신지원

을 통해 통신주관청 상호간의 통신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국내 산업진출 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통신관계에 대해서는 전용회선사용제도, 공정경쟁보장제도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한미통상 마찰을 미연에 방지토록하고 한·미통신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양국간 정보교환 및 통신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UR협상 타결이후에는 기본통신분야의 개방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EC시장의 통합으로 한·EC통신협회의 중요성이 급증됨에 따라 통신분야 정기 협력창구의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을 중심 대상으로 100명규모의 통신기술인력 훈련을 제공하고 베트남, 이란, 루마니아등에 기술용역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 호주등의 통신주관청과는 기존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쌍무적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 베트남, 캐나다등과는 새로운 통신협력회의 개최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탈이념화의 국제환경변화로 대북방 통신교류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올해는 두만강지역 전기통신개발사

업의 참여, 한·중통신장관회의 개최 그리고 한·러·일 및 한·중 통신망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V. 맺는말

정보통신은 국가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부족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므로 정부에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93. 2. 25일 출범하게 될 새정부는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보통신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한 바 있다.

체신부에서는 앞으로 정보통신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제도와 조직의 정비·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강화 및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정착, 그리고 국내 정보통신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와 계획은 산·학·연·관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 성 득

- 생년월일 : 1939년 7월 20일생
- 1959년 4월 ~ 196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 1966년 3월 ~ 1969년 2월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 1970년 5월 : 제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1977년 7월 ~ 1978년 9월 : 강릉전신전화건설국장
- 1982년 1월 ~ 1984년 1월 :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기술과장
- 1984년 1월 ~ 1987년 8월 : 중앙전파감시소장
- 1987년 8월 ~ 1990년 4월 :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1990년 4월 ~ 1991년 11월 :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 1991년 11월 ~ 현재 : 체신부 통신정책실장